



**국어의 끝**  
유현주 선생님

www.mimacstudy.com  
Facebook.com/yuhyunju.teacher  
Cafe.naver.com/youteacher

- 수능 국어의 시작
- 문법의 끝
- 문학의 끝
- 독서의 끝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분석

안녕하세요 ^^

대성마이맥 국어영역 강사 유현주입니다.

모두들 6월 모평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많이 떨리기도 하셨을텐데요.

일단, 수능을 제외한 모든 시험들은 시험을 보는 것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니까요. ^^

그래서,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이 6월 모평을 치른 후 해야 할 공부의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

모쪼록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빌어요 ^^

우선

올해도, 이번에도 역시 EBS는 이번 2015 6월 모평과 70% 이상의 연계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체감 연계율은 그것과 일치하지 않았지만요. 실제 연계된 문제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EBS만으로는 1등급이 나오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A형 분석》

오답률	문항번호	해당영역
1위	14번	문법
2위	27번	독서 - 과학
3위	37번	현대소설(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4위	41번	고전소설 (작자 미상, 흥부전)
5위	13번	문법

[화법, 작문]

- 화법 1번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29 - 1번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p. 27
- 2번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p. 23 - 1번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p. 27 - 1번
- 3번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5 - 1번
- 작문 6번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60  
7번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74 - 1번  
8번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72 - 1번

화법은 2014 수능에 비해 쉬워진 편입니다. 1~5번으로 문항수는 같지만, 지문이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었던 셈이죠. 내용도 평이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문 역시 2014 수능과 비교할 때 6~10번으로 문항수는 같지만, 지문이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크게 새로운 유형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비교적 평이하게 문제를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법, 작문은 2013, 2014에 치러진 A형 유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9월과 수능 역시 문제 유형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기출 문제 분석에 열중, 또 열중해 주세요 ^^

[문법]

- 문법 11번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p. 80  
12번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p. 91  
13번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p. 108  
14번 [A형 · B형 공통]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00~103, 112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p. 78~79  
15번 [A형 · B형 공통]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23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p. 92~93

문법은 이번에도 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답률 5위 안에 문법 문제가 2개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문제를 풀면서 화법, 작문이 쉬워졌다 느끼면서 문법을 풀며 막혔던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EBS 연계의 함정 때문이에요. 실제로 문법은 항상 EBS와 연계율 100%를 자랑해 왔지만, 그와 모순되게 오답률은 항상 상위에 있었습니다. 평가원에서 EBS와 100% 연계되었다고 한 위의 내용에도 문제 유형까지 일치하는 문항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과정 상 언급만 한 경우에도 그대로 연계했다고 발표하고, EBS 교재에는 교육과정 내의 모든 내용이 언급은 되어 있으므로 연계율 100%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EBS 교재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절대로 모든 문법 문제를 맞출 수 없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잡은 후 기출 문제들로 유형들을 익히는 것이 문법 문제를 모두 맞추는 데 훨씬

싹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독서]

독서 16~19번 (예술) [A형 · B형 공통]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89~190
- 20~21번 (기술)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72~174
- 22~25번 (인문)
  - 비연계
- 26~27번 (과학)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41~142
- 28~30번 (사회)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p. 164~165

독서는 '생활독서' 영역을 제외한 5개 분야의 글이 출제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학년도 수능과 동일한 문제 구성이었고, 인문을 제외한 분야의 모든 지문은 EBS와 연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오답률 5위 안에 독서 '과학' 분야의 문제가 들어가 있죠. 또, 대부분 EBS 지문과 비교해 보면, 내용을 그대로 쓰기 보다 지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변형하여 새로운 지문으로 구성한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도 2014학년도 수능보다는 용어라든지 지문의 내용을 많이 활용하여 난이도 자체를 많이 높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 어디까지나 모의평가일 뿐입니다. EBS가 얼마나 연계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6월, 9월에 EBS 지문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가 수능에서 전체 지문을 변형하여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던 사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번 '과학' 지문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처럼 1등급을 변별하기 위해 만드는 문제는 분명 EBS 내용과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지문을 읽었었나 할 정도로요.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와도 풀 수 있도록 완벽한 기출 문제 분석을 해 주세요. ^^

[문학]

문학 31~33번 (현대시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p. 48
- 33번 (수필 - 계몽록, 율정기(栗亭記))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p. 207

34~38번 (현대소설 -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A형 · B형 공통]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p. 244~245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p. 202~204

39~42번 (고전소설 - 작자 미상, 흥부전)

- 비연계

43~45번 (고전시가 - 이정보, 이조년의 시조, 최치원의 축규화)

- 이정보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p. 232 (문제 선지)

- 이조년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A형 p. 196
- 최치원 : 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p. 80

문학은 제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선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 극/수필 로 5개의 분야가 나뉘고 그에 따라 문제들이 2~3문제 정도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극/수필'이 생략된 4개 분야만 출제된 것이 그것이죠. 또, 2014학년도 수능과 6월, 9월 모평에서 고전소설이 A · B형 공통으로 계속 출제되었던 것에 반해 현대소설이 공통으로 출제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대신 '극/수필'이 '현대시'의 문제 구성에 포함되어 출제 되었고, 그래서 현대시도 작품이 하나인 것은 동일하지만, 문제가 3개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소설'은 문제가 5개로 늘어 2015 수능 국어 문학은 2014에 비해 문제 구성부터 난이도 까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작년과 비교해 볼 때 2014에는 문학 부분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답률 5위 안에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고전소설의 경우는 아주 익숙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어 어느 한 영역도 소홀히 보지 말고 경계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문제가 <보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과 보기의 조건들 하나하나 대응하여 꼼꼼히 살펴주세요 ^^